

매립지 침출수 무방류 시스템 개발

매립지관리공사, 환경단체 대책마련 요구 수용 ... 2014년 시행 목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침출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침출수 무방류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TF(Task Force)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모두 정화작업을 거쳐 방류구에서 경인 아라뱃길로 배출되고 있다.

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침출수를 기준치 이내로 관리해도 일단 배출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무방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TF팀은 침출수를 공정용수 및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할 계획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지면 용수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침출수는 염분 농도가 2000-3500ppm으로 다소 높은데 조경용수는 250ppm 이하의 염분 농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염분 감축이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2012년 하루 2829톤의 침출수가 배출됐고 평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기준치인 70mg/L보다 적은 5mg/L로 나타났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치는 800mg/L이나 159mg/L만 검출됐고, 부유물질(SS), 총질소 등도 기준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환경단체 등은 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아라뱃길 수질오염과 악취의 원인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립지관리공사는 2013년까지 연구를 마치고 예산을 수립해 2014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18>